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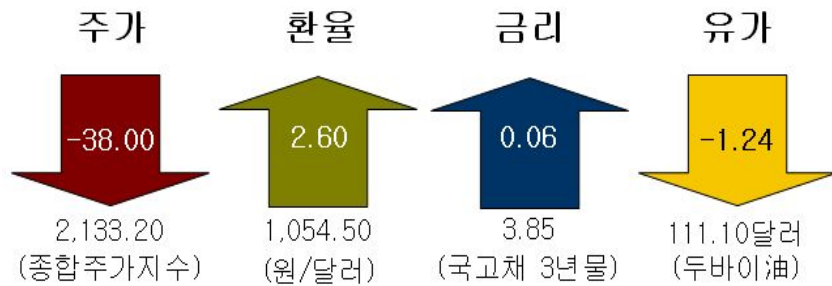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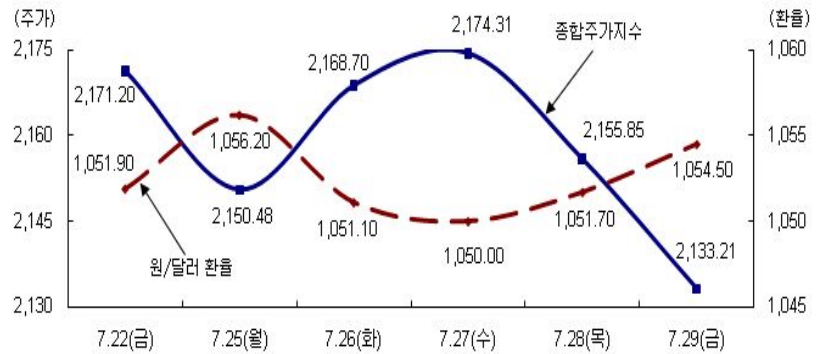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 경영 생태계가 관건이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22~7.2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 경영 생태계가 관건이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경영 생태계가 관건이다

#### 1.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 현황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화는 중소기업 생존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수출, 투자, 기술 모든 면에서 부진하다. 우선,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의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11%p 하락하였다. 또한, 중소수출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2.5%에 불과하다. 2008년 기준 중소수출기업 수는 약 7.5만개로 독일 35.3만개 (11.1%), 미국의 23.8만개(4%, 2006년 기준)에 비해 매우 적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대기업의 20%에 불과하다. 2000년대 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비슷한 규모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007년 113.2억 달러에서 2010년 58.7억 달러로 급감한 반면 대기업은 270.6억 달러로 늘어났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세계 수준의 7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2003년 19.6%에서 2009년 28.5%로 증가했으나 세계 최고 기술수준(=100)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은 2003년 73.6에서 2009년 74.7로 정체되고 있다.

#### 2.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은 OECD, EU 등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내적역량 경영 생태계, 지원시스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업내적역량은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와 기업혁신체계, 둘째로 경영 생태계는 중소기업에 기술 숙련직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와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셋째 지원시스템은 정부의 세계화지원 정책, 역내무역발달 정도 등 세계시장 접근성, 기업활동에 있어서 IT 활용도로 구성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기업내적역량 면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세계화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는 높지만 기업의 혁신체계 발달은 미흡하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의 조사에 따르면, 초기 창업 기업 가운데 해외고객 비중이 25%를 넘는 기업의 비중은 한국과 독일이 비슷하여 경영자들의 세계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혁신체계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9년 2.5%로 독일 3.5%(2007년), 일본 3%에 비해 낮았다. 특히 작업과정 혁신(process innovation)은 한국이 6.5%로 독일 17.8%, 일본 8.0%에 뒤져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생태계는 기업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와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직업교육 기반의 인력양성체제가 미흡하다. 또한 WEF에서 조사한 각 지역별 연구교육서비스 접근도 평가에서도 한국은 4.6(39위)으로 독일 6.2(2위), 일본 5.6(13위)에 비해 저조하다. 기업 간 수직·수평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정보·연구·인력의 교류 증대로 세계화를 증대시키는 클러스터 조성 정도도 한국은 25위로 일본 2위, 독일 12위에 비해 매우 낮다.

지원시스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숫자는 많지만 지원정책의 효과성은 낮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은 기관당 평균사업수가 15.5개로 독일 5.8개, 일본 29개에 비해 많고 다양하지만, 세계화 수준은 부진하여 정책에 효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세계시장 접근과 정보화는 중소기업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역내무역비중이 2000년 50%에서 2009년 65%로 높아졌고, 최근 발효된 한-EU FTA 등도 향후 중소기업 세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발전 등의 정보화도 한국은 독일, 일본과 비슷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 수준을 종합평가해 보면, 기업가의 세계화 의지,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화와 세계시장 접근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업혁신체계, 인력양성체계 및 기업 간 협력관계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독일·일본에 비해 약하다. 한편, 정부의 세계화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 3. 시사점과 과제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은 지속성장의 기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R&D 효율성 제고 작업과정의 혁신 등 중소기업의 내적 역량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 특히, 부족한 작업과정의 혁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과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에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포트폴리오(Human Capital Portfolio)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기업과 학교가 연계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에서 세계화를 추진했던 경험 많은 퇴직인력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수직·수평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기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세계화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저소득 국가에 ODA(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때도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BOP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 현황	
의미와 중요성	-(정의) 무역·투자 등 기업 활동이 해외로 확대되고 글로벌 가치사슬내로 편입 -(필요성)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기반이 되며 세계화된 환경에서 생존에 필수
세계화 부진	-중소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하락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감소세, 국내로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정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도 2003년 세계최고대비 73.6에서 2009년 74.7로 지체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독일·일본과 비교		
기업내적역량	경영 생태계	지원시스템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 기업혁신체계	인력양성체계 기업간 협력관계 조성 기반	정부의 세계화 지원 세계시장 접근도, 정보화
기업내적역량	-세계화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는 높지만 기업의 혁신체계의 발달은 미흡 ·GEM에서 조사한 초기 창업 기업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는 독일과 한국이 비슷 ·그러나,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독일 3.6%, 일본 3%이나 한국은 2.5%로 낮고 특히 작업과정의 혁신이 독일에 비해 크게 미흡	
경영생태계	-인력공급체계와 기업 간 협력관계 기반 조성의 외부요인 체계가 미비 ·독일 듀얼직업체계, 일본은 모노즈쿠리 정신의 직업훈련체계를 확립 ·지역의 연구·교육서비스 접근도 지수도 한국은 4.6으로 독일 6.2 일본 5.6에 비해 낮음 ·클러스터 조성 정도 평가에서도 일본은 2위, 독일12위이나 한국은 25위	
지원시스템	-중소기업 세계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양적지표는 높으나 효과성은 낮음 -세계시장 접근과 정보화 지표는 중소기업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국 중소기업의 역내 수출 비중은 65%로 높고, 최근 발효된 한-EU FTA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정보화 지표인 WEF의 국제 IT 경쟁력 지수도 한국은 기업의 IT준비와 활용 지수 모두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	
종합평가	-(약점) 한국은 중소기업 세계화에 있어 기업혁신체계, 인력공급체계 및 기업 간 협력관계 기반 조성의 내·외부 요인의 경쟁력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열약함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사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매우 낮음 -(강점) 그러나, 기업가의 세계화 의지, 높은 정보화와 세계시장 접근성 등은 중소기업 세계화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 과제	- 첫째, R&D 효율성 제고와 작업과정의 혁신 등의 기업 내적 역량 강화 - 둘째, 중소기업에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자원 포트폴리오 재조정 - 셋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도 강화 -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계화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1.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 현황

### ○ 중소기업 세계화의 의미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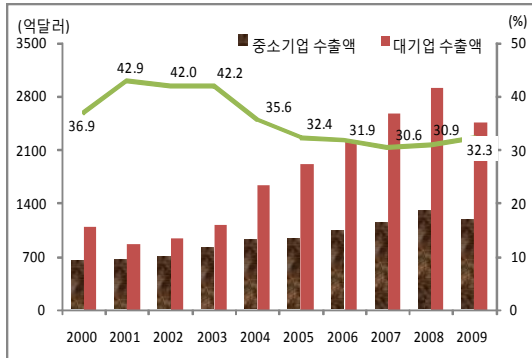
- (정의) OECD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무역, 해외투자, 전략적 협력관계 및 네트워킹 형성 등 기업 활동이 해외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up>1)</sup>내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함
- (중소기업 세계화의 필요성)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되며 전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개방경제에서 소규모 기업에게도 세계화는 생존에 필수적임
  - OECD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내수집중 기업에 비해 2~3배 높은 성장세를 보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Building Middle)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기업 수명이 평균 10.7년으로 짧은데 세계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강화
  - 한편, 소규모 개방 경제로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내 내수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수 불가결해짐

### ○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수출, 투자, 기술수준에서 모두 부진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대기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 수출 기업수도 전체 중소기업의 2.5%로 매우 적음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면서 그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이 전체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출이 용이한 아시아 역내수출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하락
  - 2008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수도 총 7.5만개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35.3만개 11.1%, 미국은 23.8만개로 4%(200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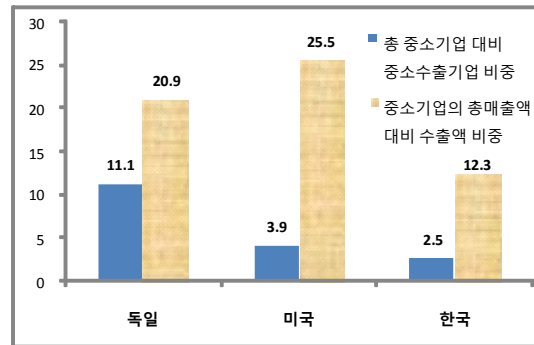
1) 마이클 포터는 기업가치사슬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각각의 부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함

<총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

<국가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독일 중소기업연구원.  
주: 독일과 미국은 500인 이하, 한국 30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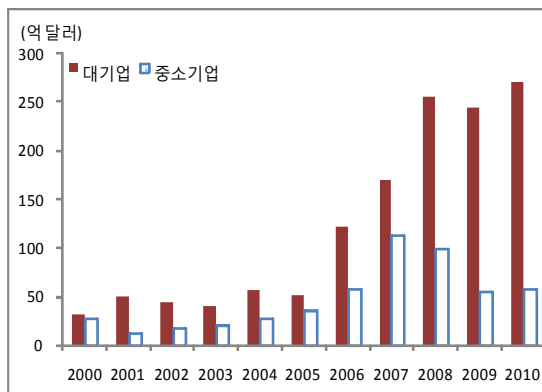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대기업의 20%에 불과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정체되면서 투자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후퇴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31.6억달러, 28.5억달러로 비슷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007년 113.2억달러에서 2010년 58.7억달러로 급감한 반면, 대기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도 2005년 이후 연간 10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특히 신규투자 비중이 감소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대비 70%에 머무르고, 중소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면서 기술 수준의 세계화도 지체

- R&D 수행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2003년 73.6(세계최고수준=100)에서 2009년 74.7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침
-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무역수지가 2009년 7.5억 달러 적자를 기록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연도	기술 수준	R&D수행 기업비중 (%)	기술무역수지 (백만달러)
2003	73.6	19.6	-450
2005	75.8	20.8	-622
2007	74.6	22.6	-912
2009	74.7	28.5	-74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주: 1)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은 100임.

## 2.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 1)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 (7대 성공 요인)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와 연구개발 강화 등의 혁신 체제를 갖추는 기업내적역량과 효율적 인력양성체계, 기업 간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한 경영 생태계와 더불어 정부의 세계화 지원, 세계시장 접근 용이성, IT발달 등의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세계화 성공 요인은 OECD, EU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도출2)
  - 기업내적역량: 기업가의 세계화 추진 의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기술 특화와 혁신 체계 구축
  - 경영생태계: 숙련·기술직의 인력양성 체계, 기업 간 협력 관계 형성의 기반 조성
  - 지원시스템: 세계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역내무역 발달 등의 지역경제통합의 세계시장 접근도와 전자상거래 발전 등의 정보화

#### <중소기업 세계화의 7대 성공 요인>

성공 요인		비 고
기업내적역량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	-중소기업 세계화에 있어 경영자의 세계 시장 진출의지가 매우 중요함
	기업 혁신 체계	-특화되고 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높고 이에 수출과 해외투자 등 세계화를 활발히 추진
경영생태계	인력 양성 체계	-현장 교육이 강화된 인력 양성체계는 기술·숙련직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 중소제조업의 세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기반	-기업 간 협력 강화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함 -특히 소기업들이 지역 클러스터에 속해있다면 세계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지원시스템	정부의 세계화 지원	-수요자 중심적이고 각각의 기업 상황에 적합한 세계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세계화에 필수적임
	세계시장 접근	-역내 무역규모의 확대, FTA 체결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정보화	-IT 네트워크 발달,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중소기업 세계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임

자료: OECD(2004), EU(2010, 2007), Berra et al.(1995), Fernandez, Z&Nieto, M. J.(2005) 등 중소기업 세계화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2) p.13 별첨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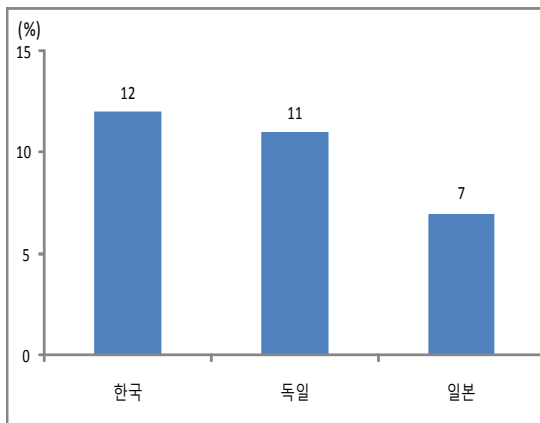


## 2)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비교- 독일·일본과 비교<sup>3)</sup>

○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필요한 기업의 내적역량을 비교해 볼 때,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가들의 의지는 높지만 독일·일본에 비해 혁신체계의 발달이 미흡함

- (기업가의 세계화 의지) 중소기업 세계화에 있어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핵심요소
  -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에 따르면, 기업가들의 세계화를 평가할 수 있는 초기 창업 기업 중 해외고객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독일이 비슷하고 일본은 보다 내수 지향적임
- (중소기업 혁신 체계) 독일, 일본의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고 제품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의 혁신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독일이 3.6%(2007년), 일본 3%대이나 한국은 2009년 2.5%(기술개발수행업체 기준이며, 전체 중소제조업 기준으로는 1.24% 수준에 불과함)로 낮음
  -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은 독일이 23.8%로 한국 21.9%, 일본 14.0% 보다 높았고, 작업 과정의 혁신도 독일은 17.8%에 달해 일본 8.0%, 한국 6.5% 보다 2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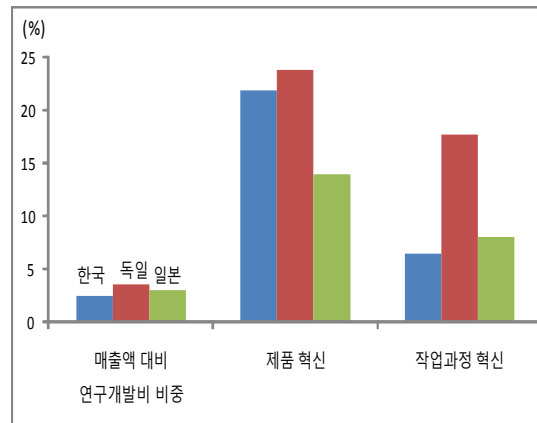
<기업가의 국제화 지향 정도>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주: 1)한국 2009년, 일본 2008년, 독일 2006년임.  
2)초기 창업 기업 중 해외고객 비중 25% 이상 기업

<중소기업의 혁신 체계 비교>



자료: 각국 통계청, OECD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2010.

주: 제품혁신과 작업과정 혁신 비중은 한국, 일본은 2002~4년, 독일은 2002~6년 기준.

3) 한국·독일·일본의 제조업 비중은 각각 27.9%(2008년), 23.9%(2007), 21.2%(2007)로 G20 국가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아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 이에 따라 이들 국가 간 중소기업의 세계화 정도를 평가하여 국내 중소기업 세계화 기반의 장단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한국은 기업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 기업 간 협력관계 기반 등의 중소기업 경영 생태계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 열약함
- (인력양성체계) 독일과 일본 모두 중소기업에 기술·숙련직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계가 사회 전반에 확립되어 있음
    - 독일은 전체 학생의 약 27%(2005년 기준)<sup>4)</sup>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직업 교육생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Mittelstand)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에는 해당기업에 취직하는 비중이 높음
    - 일본도 모노즈쿠리 정신에 입각한 장인양성체제<sup>5)</sup>가 국가 전반에 퍼져있는데 이는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완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비용 인상 요인을 내부로 흡수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갖추게 함
    - 특히, WEF에서 조사한 지역의 연구·교육서비스 접근도 평가에서 한국은 4.6(39위)으로 경쟁력이 낮으나 독일 6.2(2위), 일본 5.6(13위)은 상위권을 기록
  - (기업 간 협력 관계 기반) 지역에 특화된 독일과 일본의 클러스터들은 기업 간 수직·평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정보·연구·인력 교류를 증대
    - WEF(2010)의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클러스터 조성 정도 평가에서 일본은 2위, 독일 12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5위로 뒤떨어져 있고 특히 국내 공급자의 양·질적 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독일과 일본의 클러스터들은 오랜 세월동안 특정 지역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재료 및 중간재 공급 체인망 구축<sup>6)</sup>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기업 간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극대화
    - 이로 인해, 독일과 일본의 국내 공급자들의 양적 질적 수준은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반면 한국은 20~30위권으로 경쟁력이 낮음
  - 특히, 잘 발달된 연구개발의 네트워크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세계화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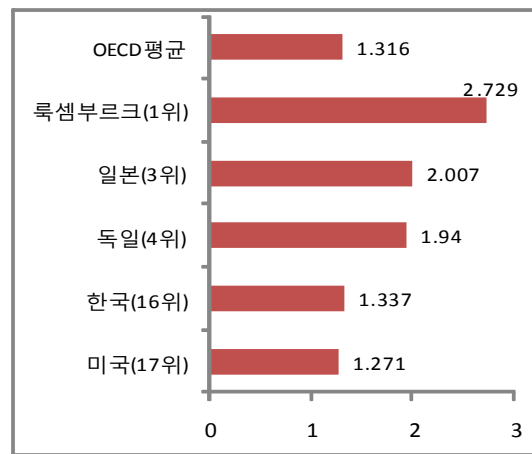
4) 2005년 기준 전체 일반 학교의 학생수는 9.7 백만명이며, 이 중 직업학교 학생은 2.7백만명 수준임.  
 5) 2005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과학, 기술, 기능이 융합되고 모노즈쿠리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육성(히토즈쿠리)하는 모노즈쿠리 국가전략비전을 발표  
 6) 반면 정책 당국의 의지로 기업 유치, 인프라 투자 등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되어도 지원 시스템과 제도(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가 잘 구축되지 못한다면 클러스터는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음. 이 경우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 지역 지하자원, 수입된 중간재와 기술 등에만 의존하는 낮은 단계의 클러스터 형성에 머물게 됨. Christian H.M. Ketels, 'From clusters to cluster-based economic development'(2008).

- 2009년 기준 국가별 연구개발의 네트워크 지수를 살펴보면, OECD 30개국 중 일본 (2.007점) 3위, 독일(1.940점) 4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1.337점)은 16위임
- 특히, 연구개발의 산학연 협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일본과 독일이 각각 2, 3 위이며, 국제협력 부문에서도 독일 2위, 일본이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일본중소기업들 중 종업원 101인 이상 기업의 80%, 20인 이하 기업도 72.6%가 다른 기업과 제휴를 통해 연구개발 중임

<클러스터 조성의 국제 경쟁력 순위>

	클러스터 조성 정도	국내공급자 양적 수준	국내공급자 질적 수준
독일	12위 (5.0)	3위 (6.0)	3위 (6.2)
일본	2위 (5.4)	2위 (6.4)	4위 (6.2)
한국	25위 (4.4)	25위 (5.3)	33위 (5.2)

<OECD국가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수>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s', 2010.

자료: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09.

주: ( ) 안은 1~7의 지수로 7로 갈수록 좋음.

○ 한국은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많은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은 시장접근, 금융지원, 역량제고 및 경영환경으로 구분<sup>7)</sup>됨

- 독일 5개, 일본 15개 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도 11개 정부, 민간 및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중임
- 시장접근은 마케팅 지원, 정보제공, 정보화 및 e-BIZ지원, 금융지원은 조세 감면, 금융/자금지원, 보증을 지원하며 역량제고는 인력교육훈련 지원, 기술 지원, 자문경영/법률 및 사무행정을 경영환경은 정책/법/제도 개선 및 양다자간 협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음

7) 중소기업연구원, 홍유수·반유미(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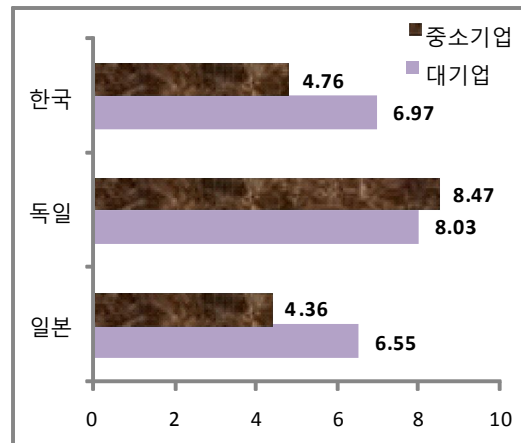
- 한국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세계화는 지체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 중이나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독일은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정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1990년대 KFW-SME Programme Abroad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 시장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대출로 국제화를 지원했음
- 일본도 가장 많은 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 평균 사업수는 매우 낮아 특화되고 집중화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최근에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개발도상국(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하)에서는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BOP(Base of the economic pyrami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중임
- \* BOP사업이란 정부 또는 NGOs가 저소득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DA를 제공할 때 민간 기업이 함께 진출하고 향후 경제 개발 시에는 신 시장의 창출로 연결(p.15 별첨 4 참조)

<중소기업 세계화의 정부지원 사업>  
(단위: 개)

	독일	일본	한국
총 기관수	5	15	11
총 사업수	29	43	170
시장접근	15	15	50
금융지원	6	9	36
역량제고	5	19	56
경영환경	3	-	28
평균 사업수	5.8	2.9	15.5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홍유수·반유미(2006).

<대 - 중소기업 효율성 순위>



자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2011).

주: 국제기준에 의거한 기업의 효율성을 1~10으로 측정.

- 중소기업 수출이 용이한 역내무역 발달 등은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시켜 세계화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
- EU 회원국인 독일의 역내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의 역내수출 비중도 6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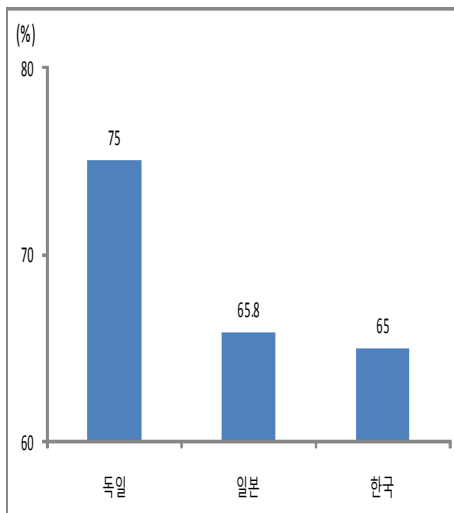
- 독일의 중소기업의 수출 중 EU 수출 비중은 75%로 역내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음. 국내 중소기업도 아시아로의 수출이 2009년 기준 64%에 달함.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은 접근성이 높은 역내 및 국경 인접 지역이 우선되기 때문
- 독일은 EU회원국이며 EU는 개별국가 및 지역경제공동체와 체결한 31개의 FTA가 한국은 6개, 일본은 3개의 FTA가 발효 중임

○ 마지막으로 IT 인프라 구축과 전자 상거래 발전 등의 정보화도 중소기업의 세계화의 촉진 요인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IT 네트워크 발달과 전자상거래 발전 등도 중소기업의 세계화의 촉진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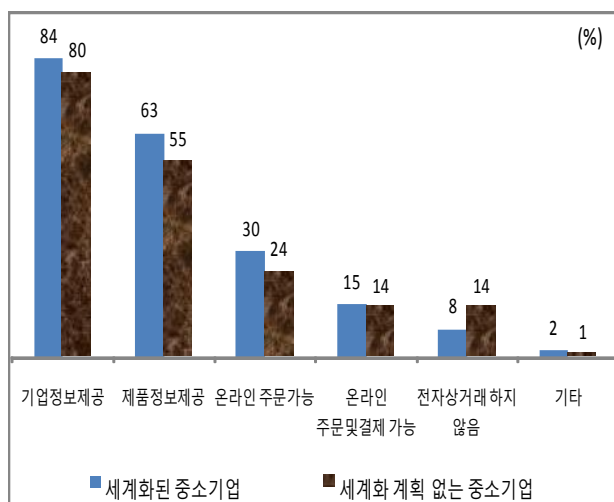
- WEF의 2010~11년 국제 IT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IT준비와 활용 지수는 각각 독일 5.27(4위), 4.80(7위), 일본 4.91(16위), 4.96(4위)이며 한국은 4.91(16위), 5.20(2위) 기록하여 기업 활동에 있어 IT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 유럽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세계화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활용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최근 세계화의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온라인을 통한 주문 등 전자상거래의 활용 비중이 높음

<중소기업 수출의 역내무역 비중>



자료: 각 국 중소기업청.  
주: 독일은 유럽,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로의 수출 비중임.

<세계화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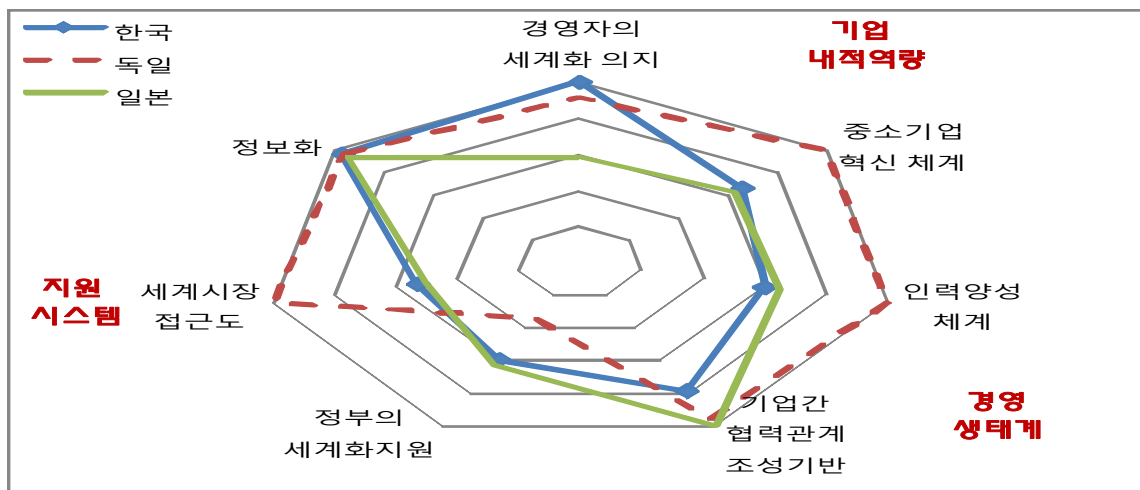


자료: 유럽연합, 유럽 중소기업의 세계화(2010).  
주: 2009년 중소기업 9,480사를 설문조사.

### 3) 세계화의 성공 요인 종합평가

- 한국은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정보화와 세계시장 접근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나 기업혁신체계, 인력양성체계 및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기반의 내·외적 요인의 경쟁력이 낮고 정부의 세계화 지원정책의 효과성도 낮음
- (강점)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있어 한국은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가 강하고, 세계시장 접근도, 정보화 및 정부의 세계화 지원 정책에 있어 강점을 보임. 단, 정부 정책의 효과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독일이 정부의 세계화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며, 일본은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인력양성체계와 정부의 세계화 지원 등에서 강점을 보임
- (약점) 그러나 한국은 중소기업의 혁신체계, 인력양성체계 및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등에 있어서 독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한국은 기업가의 높은 세계화 의지와 강한 환경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적 역량을 높이는 R&D 강화, 기술·숙련직의 직업교육체계 재구축, 기업 간 수직·수평적 협력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한·독·일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 비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각 요인별 지표값은 가장 좋은 나라를 1로 하고 다른 두 나라는 상대값을 구하였고 요인별 지표가 1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값을 더하고 지표 개수로 나누어 줌.

2) 각 요인별 변수는 p.13, 14의 별첨 2와 3을 참조.

### 3. 시사점과 과제

#### ○ R&D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작업과정의 혁신 등의 중소기업 내적 역량을 꾸준히 높여야 함

- 산학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산학연 협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특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 혁신 체계를 갖춰야 함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법은 소기업일수록 자체개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 한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2004년 2,788개에서 2009년 1,295개로 감소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독일은 중소기업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막스 플랑크(Max Planck), 프라운호퍼(Fraunhofer) 등 세계적인 연구개발 기관들이 공동기술 개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음
-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작업과정 혁신(Process Innovation)를 제고할 수 있는 국제 표준화, 작업 매뉴얼 작성 등이 필요함

#### ○ 중소기업에 기술·숙련직 등의 필요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포트폴리오(Human Capital Portfolio)를 재조정하여 기업과 학교가 연계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기술력이 높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 양성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인력을 양성할 있는 현장 직업 훈련학교(Vocational Training School)로 발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난에 대응
- 2009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51%이나 부문별로는 연구직 3.65%, 기술직 3.06%, 기능직 3.30% 등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작업 현장을 계약을 통한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
- 특히, 독일의 듀얼 직업 교육 시스템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도입하고 독일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자국 인력의 숙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대기업의 세계화를 추진했던 퇴직 인력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를 확대하여 대기업의 세계화 경험을 중소기업에 이전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도 강화

- 일본에서는 서로 다른 중소기업이 하나의 사업체처럼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 등의 협업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정부도 이들에게 제휴 비용과 판매비용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한편,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와 클러스터들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연구·기술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함

○ 정부의 세계화 지원 정책을 기업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저소득 국가에 ODA를 지원할 때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BOP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세계화가 필수적이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화가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지원 정책도 일관된 수출 지원 위주에서 다양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기업 유형별로 금융자원, 기술, 정보의 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지원 체제 마련되어야 함
  - 해외 진출 시에는 신규 수출시장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협력 및 네트워크 조성까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세계화 초기에는 역내시장에 집중하고 이후에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보다 체계화
- 한편, 정부 또는 NGOs가 저소득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DA를 제공할 때 민간기업이 함께 진출하고 향후 경제 개발시에는 신 시장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BOP(Base of the economic pyramid) 사업의 지원 강화도 고려

정책연구실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chjss@hri.co.kr)



<참고문헌>

- Welch, L. S. (1992) "The use of alliances by small firms in achieving internationalization." Scandinavian International Business, 1(2), pp. 21-37.
- Berra et al(1995),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 case study on the intalian clothing industry"
- OECD (2004), "Facilitaing SMEs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2nd OEC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SMEs"
- Fernandez, Z&Nieto, M. J(2005)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small- and medium-sized family business: some influential factors", Family Business Review March 2005 vol. 18 no. 1 77-89.
- 홍유수반유미(2006), "주요국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 European Commission(2007),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 European Commission(2010), "Internationalization of European SMEs""
- OECD(2010),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 EIU(2010), "SMEs in Japan: A new growth driver?" 외 다수

<별첨 1> 중소기업 세계화에 관한 기존 연구

	EU(2010,2007)	OECD(2004)	Fernandez, Z& Nieto, M. J(2005)	Berra et al(1995)	Welsh (1992)
주요 변수	-경영자의 의사결정 -정부지원 정책 -혁신체계 -E-Commerce 활성화 -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 획득의 효율성	-중소기업 수출입 -해외투자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 -ICT 발달 -세계화된 인프라 구축 (금융시장, 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지원 정책	-직업교육 체계 -후계자 계승 -기업간 협력	-수직·수평적 협력관계	-경영자의 의사결정 -협력적 기업관계

<별첨 2> 중소기업 세계화의 7대 성공 요인별 변수

	성공 요인	변수	발표기관
기업 내적 역량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	-초기 창업기업 중 해외고객 비중이 25% 이상인 기업	-GEM, 데이터베이스
	중소기업 혁신 체계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R&D 비중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 -중소기업의 과정 혁신	-각국 중소기업청 -OECD(2010), 중소기업, 기업가정신과 혁신
경영 생태계	인력양성 체계	-중등교육의 직업교육 비중 -지역의 연구교육서비스 접근도	-OECD -WEF 국가 경쟁력 보고서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기반	-클러스터 조성 정도 -국내 공급자의 양·질적 수준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수	-WEF 국가 경쟁력 보고서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09
지원 시스템	정부의 세계화 지원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 수 -기관별 평균 지원정책 수	-홍유수·반유미(2006)
	세계시장 접근	-중소기업의 역내수출 비중 -발효된 FTA 수	-각국 중소기업청 -WTO
	정보화	-기업 활동의 IT 준비 지수 -기업 활동의 IT 활용 지수	-WEF IT 경쟁력 보고서

주: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2010~11년 기준임.

<별첨 3> 각 요인별 변수 값

성공 요인		변수	한 국	독 일	일 본	비 고
기업 내 적 역 량	경영자의 세계화 의지	초기 창업기업의 해외고객 25% 이상 기업의 비중(%)	12	11	7	-한국(2009), 독일(2006), 일본(2008)
	중소기업 혁신체계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R&D 비중(%)	2.5	3.6	3	-독일(2007) -일본, 한국(2009)
		제품 혁신(%)	21.9	23.8	14.0	-한국, 일본은 2002-4년, 독일 2004-6년
		과정 혁신(%)	6.5	17.8	8.0	
경영 생 태 계	인력양성 체계	중등교육의 직업교육 비중(%)	27.8	59.4	23.7	-2009년 기준
		지역의 연구·교육서비스 접근도	4.6	6.2	5.6	-범주 1~7임(2010년) -7에 가까울수록 좋음
	기업 간 협력관계 조성 기반	클러스터 조성 정도	4.4	5	5.4	-범주 1~7임(2010년) -7에 가까울수록 좋음
		국내 공급자의 양적 수준	5.2	6.2	6.2	-범주 1~7임(2010년) -7에 가까울수록 좋음
		국내 공급자의 질적 수준	5.3	6	6.4	-범주 1~7임(2010년) -7에 가까울수록 좋음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수	1.337	1.94	2.007	-2009년 기준
지원 시 스 템	정부의 세계화 지원	기관별 평균 지원정책 수(개)	15.5	5.8	2.9	-2005년 기준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 수(개)	170	29	43	-2005년 기준
	세계시장 접근	중소기업의 역내수출비중(%)	65	75	65.8	-2009년 기준
		발효된 FTA 수(개)	6	31	4	-2011년 6월말 기준
	정보화	기업 활동의 IT 준비 지수	5.2	4.8	4.96	-범주 1~7임(2010년) -7에 가까울수록 좋음
		기업 활동의 IT 활용 지수	4.91	5.27	4.91	-범주 1~7임(2010년) -7에 가까울수록 좋음

<별첨 4> BOP 사업이란

-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전세계 인구의 70%인 40억명 규모이며 일본 연간 실질 GDP에 해당하는 50조 달러의 시장이 형성
- BOP 사업의 범위
  - 식수, 필수 생활용품과 서비스, 기아 감소, 에너지 절감 기술, 교통수단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GOs 등과 파트너십으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진출
- 기존 BOP 사업의 성공 사례
  - 일본의 소규모 정수기 제조업체인 Nippon Poly-Glue Co., Ltd.는 2007년 사 이클론이 강타한 방글라데시에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한 식수 공급 장소를 마련하고 기부. 이후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안전한 식수 사업에 참여
  - 한편, 일본의 Sumitomo Chemical은 살충제가 녹아있는 모기장인 Olyset net을 개발하였고 적어도 5년 동안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서 50개국에 국제기구의 원조 형태로 제공됨. 이후 탄자니아에 생산 시설을 마련
  - 덴마크 회사 Vestergaard Frandsen의 Lifestraw도 4달러에 판매되는 휴대용 개인 정수기로 3년 동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음. 이 제품 또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 원조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7월22일	7월2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97	2.80	-0.17%p
	엔/달러	92.93	88.43	81.19	78.48	77.79	-0.69¥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410	1.4325	-0.0085\$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681	12,143	-538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132	9,833	-29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79	3.85	0.06%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51.9	1,054.5	2.6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171.2	2,133.2	-38.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7월22일	7월2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9.71	95.78	-3.93\$
	Dubai	78.06	73.14	88.80	112.34	111.10	-1.24\$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7.93	342.08	-5.8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